

수도권 동서남북 ‘역세권 아파트’ 쏟아진다

비역세권과 높은 가격차...미래가치 커
용인·파주·김포·하남 등 투자처로 각광

주택시장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집값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역과 가까울수록 집값은 비싸다. 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데, 역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생활환경도 좋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노선이 개통되는 곳은 지역 인프라 개선과 인구유입 등의 영향을 일으켜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수도권에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3000만 원을 더 낼 의사가 있었다. 5000만 원을 더 낼 수 있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특히 역과의 거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보다 경기 및 지방에서 더욱 크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비해 전철이 달는 곳이 드물어 역세권의 가치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도시내 역세

권아파트는 서울 접근성도 좋은 만큼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역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판교역이 위치한 성남시 삼평동은 역세권 아파트와 비역세권 아파트 가격이 2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6월 판교역 6분 거리의 붓들마을7단지 휴먼시아엔파트 전용 84㎡형은 8억5000만원 선에 거래된 반면,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한 붓들마을2단지 이지더원 전용 84㎡형은 6억 4000만원선에 거래돼 2억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서울역과 공덕역등 서울 도심 업무지구와 파주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의선 역시 역세권과 비역세권 아파트 가격차가 크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내에서 도 야당역이 가까운 야당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274만원 선이지만, 도보 이용이 어려운 목동동의 경우 3.3㎡당 1030만원 선으로 24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동서남북에 역세권 아파트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동원개발이 용인시 역북지구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에 건설하는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가 대표적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842가구로 건설되는 이 아파트는 경전철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다. 명지대역을 이용해 분당선 기흥역에서 환승하면 강남권까지 접근이 수월하다.

수도권 북쪽으로는 롯데건설이 파주운정 신도시에 공급하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가 있다. 반경 500m 범위에 경의선 야당

역(가칭)이 이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야당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한신공영이 이달 김포 한강신도시에 짓는 ‘운양역 한신휴 테라스’도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역세권이다. 총 924가구의 중소형 테라스하우스타운으로 2018년 개통예정인 운양역과 가까워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현대산업개발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공급하는 ‘다산신도시 아이파크’는 지하철 8호선 연장예정인 별내선 다산역(2021년)이 단지로부터 약500m거리에서 개통될 예정이다. 다산역 주변에는 다산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선다. 효성은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파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이 도보 7분 거리다. 리얼투데이 김지연 연구원은 “신도시 택지지구 아파트 값이 역세권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역세권 아파트는 향후 집값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거주지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대명 ‘전자다트’ 사업 시동 리조트산업과 시너지 기대

호텔·레저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 리조트나 호텔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레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대명그룹은 최근 디지털 보안장비 제조기업인 계열사 대명코퍼레이션을 통해 최근 전자다트 사업에 진출했다. 대명 코퍼레이션은 15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향타워미널의 소노펠리체 방백&컨벤션에서 전자다트 브랜드 ‘다트 아레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희 대명코퍼레이션 대표이사과 사업관련 관계자, 파트너사, 다트 동호회 등이 참석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기존 마니아 중심의 전자다트를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레포츠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명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세계다트 연맹의 회원은 9000여만명으로 마니아들은 기존 ‘스틸 다트’에서 ‘전자다트’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트 제품 판매와 렌탈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용 수익 등 기타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제작발표회에서 대명코퍼레이션은 원격화상 대결,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 RFID 기능을 이용한 업계 최초 스마트폰 NFC 회원카드 시스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원 등 새로운 기능을 갖춘 전자다트 시스템을 공개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대명레저산업의 리조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다트의 시장 개발과 확대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국에 분포한 14개의 대명 리조트에 ‘다트 아레나’ 장비를 설치, 리조트 방문객들이 전자다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리조트의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전자다트 시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명코퍼레이션 관계자는 “2016년까지 국내외 영업력을 총동원해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메르스 여파 관광객 감소 역대 관광수지 최대 적자

8개월간 39억8700만 달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탓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광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관광수입은 100억4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2% 감소했다. 반면 관광지출은 140억3500만 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6.6% 늘었다. 이에 따라 8개월 동안 관광수지 적자는 39억89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관광수지 최대 적자였던 2010년의 39억 87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측은 6월부터 8월까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반면 해외로 떠난 내국인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8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5%나 줄어들었고 7월과 6월에도 53.5%와 41.0% 감소했다. 반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로 떠난 내국인은 1165만568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 대회

사진제공 | 아모레퍼마뉴

“유방건강에 관심을” 여의도 핑크릿 물결

여성들에게 유방암 자가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18일 서울대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매년 열리는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4월 부산대회를 시작으로 5월 대전, 6월 광주, 9월 대구, 10월 서울 등 전국 총 5개 도시에서 연중 릴레이로 열렸다. 18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서울대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해 함께 보고 즐기며 나

누는 핑크릿 축제로 펼쳐졌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를 위한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및 캠페인 목적사업에 쓰인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만4000여명의 참가를 통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하며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핑크리본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이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 1만명 참가

한 뒤 유방건강 인식향상을 위해 전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14년간 약 46만명이 참여하며 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핑크리본캠페인 15주년을 맞이해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언제나 내 가슴을’ (Pink Ribbon, Always) 슬로건을 선포하며 유방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연중캠페인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연세호 기자

원더걸스, 마리아나 관광청 새 홍보대사 위촉

사이판, 티니안, 로타 섬 등 서태평양 섬으로 이루어진 마리아나 관광청이 새 홍보대사로 걸그룹 원더걸스를 위촉했다. 마리아나 관광청은 최근 주토크스 부청장이 방한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원더걸스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원더걸스는 위촉장에서 촬영 차 사이판과 로타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마리아나 관광청 홍보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마리아나 관광청 한국 사무소의 신희훈 팀장은 “앞으로 원더걸스와 함께 한국 시장에 마리아나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내년 마리아나 현지에서 새로운 호텔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 김건태 기자 bong82@donga.com

미제철
효과100%, 직수입
최저가 도매상
두통, 홍조, 쓰러짐 없는 강함발기
010-8674-8545

미제 후 불 제
미제 최저가, 직수입
*효과100% *두통, 홍조, 쓰러짐 없는 강함발기
도매가 010-2175-2418

강한남자 미국정품
효과100%
*후불제, 탁월한효과, 강한발기/각종캡슐
도매가 010-7600-4116

옥포단만의 남성기능 단련제품
노하우전수
최첨단 칩이 내장되어 있어
남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2개의 스위치로 연속, 간헐, 진동조절 가능!

원더링션파워
3단 다기능형 링
K1특허동축제품

한층 업그레이드 제품
복합재료, 매우 주수술
위대한 자력비
사이드, 저항, 힘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의 특징
1.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소재는 반복해서
수백번 사용해도(열안정성)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
2. 매우 가벼워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
3. 사물과 충돌을 가해지지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원된다.

방이온 모든일에 에너지가 넘친다. 사이클링 NO. 1인 (자이세) 박진다 (커세)

IF New-Frontier
뉴-프론티어 1층 통신판매
02) 3392-5179 / 010-8820-1233
국민은행 104301-04-389251 통신판매 935-02-302785 이인진
카드결제 가능 할 / 주, 아 24시간 상담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419-증-42065호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 경 + 귀 두
길 이 +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형)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 평창형 기술로 성생활 가능)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 477-7523
위치: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이제, 당신의 밤이 뜨거워 진다.

나만의 파트너 웡녀

♣ 웡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할 때
♣ 외롭고 고독한 남자가 될 때

새로운 공기주입형 인형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웡녀와 함께 매일 매일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보세요!

신제품 19
※ 공기인형신장: 160cm
실제 여성과
유사한 사이즈

강한남자...애정은 뜨겁게 !!!!!
좋은가격...좋은재료...웡녀같은 파트너

웡녀를 만나면 신비롭고 **활활한 경험**을 하하게 됩니다.
새경지를 개척하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친절 상담 02) 3390-5179 / 010-2766-588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307-증-55039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 부전

● 미세자지지방 이식술
● 주사요법 확대술
● 대체진피 이식술
● 정관·포경수술
●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대일남성의원
24시간 상 담
(代) 02) 444-1233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수술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